

“광주,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타당 유일한 도시”

市, ‘유치 포럼’ 통해 전략화
여수·전북 등 유치 경쟁 치열
미디어아트 등 강점 내세워야
“비엔날레-ACC 연계 지역특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전에 나선 광주광역시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을 열고, 분관 유치의 당위성과 광주만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포럼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과 지역 미술계 인사,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 북부·강원·전라권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권에서는 광주 외에도 여수시와 전라북도가 유치 의사를 밝히며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분관 유치를 25년 전부터 준비해온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광주는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30일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에서 기조 발제하고 있다.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해왔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의 역사성과 타당성을 갖춘 유일한 도시”라고 평가했다.

광주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은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의 흐름을 특화해 전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박광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장은 “광주는 한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작가들을 다수 배출한 도시로, 세계 미술계와의 교류 경험도 풍부하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미술관이 이 도시의 예술적 위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유치 전략은 단순한 문화시설 설치를 넘어 ‘문화 가치사슬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창·제작),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전시·유통), 광주비엔날레 전시관(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삼각 문화거점’을 통해 유기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깊은 도시이며, 민주·인권·평화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예향·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며 “광주만의 특화된 국립미술관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쳤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더불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유치도 함께 추진해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글·사진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AI·재생에너지 구체적 실행 전략 서둘러야”

1면서 계속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가 실행 중심의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AI업계 관계자는 “AI 인프라를 실제 활용할 기업군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센티브 설계, 실증 테스트베드와 창업 지원체계 등 산업 생태계 설계가 필요하다”며 “기업 입주 유인책으로 지방세 감면, GPU(그래픽처리장치) 활용 보조금, 전력요금 할인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연도별 투자계획 및 기업 유치 일정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전략도 계통망 확

충,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 갈등 관리 등 ‘3대 실행 조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관련해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전문가는 “송전망 공동 구축 협의, HVDC(고전압직류송전) 건설 일정 공개, 계통 접속 우선순위 조정 등 구체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RE100 특화산단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면 단순 명칭이나 지정 수준을 넘어, 전용 부지 확보, 전기요금 인센티브, PPA(전력구매계약) 구조 설계, 환경 민원 사전관리까지 포함된 실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허가 2.6GW 추가

신안 6곳·여수 1곳... 전국 61%
지산지소·에너지기본소득 탄력

전라남도는 최근 제313차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 결과 전남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받은 7곳은 신안 블루자은, 블루임자, 블루신의, 블루비금1·2, 신안 케이워드파워, 여수 이순신1이다.

크레도 오프쇼어에서 신청한 신안 블루사업 5건은 발전 용량이 각각 400MW로 합

계 2GW다.

KCH의 신안 케이워드파워는 323MW, 딥워드오프쇼어(DWO)의 여수 이순신1은 발전용량이 345MW 규모로 신안과 여수 해상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전남은 기존 허가받은 18.7GW에 이번 심의를 통과한 2.6GW 규모를 더해 총 21.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30GW 목표 달성을 눈앞에 뒀다.

특히 이는 전국 발전허가량 34.8GW의 61%를 차지하는 규모로 해상풍력 최적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남 시군별로는 여수 9, 고흥 4, 영광

5, 해남 0.3, 진도 2.3, 완도 1.2, 신안 8.2GW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총 보급 목표 30GW 실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허가사업 중에는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지 사업에 해당하는 곳도 1개 포함됐다.

집적화단지 10개 사업 중 한전에서 풍황계측 중인 2개 사업을 제외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8개 사업 전부 허가된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쌀인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